

올해 '수산질병관리사' 113명 선발

- 해양수산부, 2026년 제23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교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9일(수) 제23회 수산질병관리사 최종 합격자 113명에게 면허증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총 273명이 접수하였고, 시험과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 113명이 선발되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 등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단·예방·치료하는 국가 전문자격으로, 양식 현장의 방역 수준을 높이고 수산생물 질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학의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해야 하며,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거쳐 면허가 발급된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취득자는 이번 합격자를 포함해 총 1,502명이다.

수산질병관리사의 주요 진출 분야로는 ▲수산생물질병관리원 ▲수산생물 방역·검역기관 및 공공기관 ▲양식장 및 수산 관련 기업 ▲수산용 의약품 및 백신 관련 기업 ▲대학·연구기관 ▲아쿠아리움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질병 예측 시스템 개발 등 첨단 기술 기반 분야로도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질병관리사는 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문인력”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1-773-5610)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림 (051-773-5625)